2004 포장기술사

제지 · 합성수지 보완, 복합 포장재 제조 기대

하 옥 자 / 삼공제지(주) 대표이사

제72회 포장기술사로 배출된 삼공제지(주) 하옥자 사장은 최초의 여성포장기술사라는 점에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선 · 후배 포장인들의 격려와 지도로 포장 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하 사장은 지난 1974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후, 시아버지로부터 삼공제지를 물려받아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고 있다. 한국포장협회를 비롯해 한국디자인 진흥원, 한국 포장 기술사회 등에서 주관하는 포장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하옥자 사장은 3년전 포장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포장기술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파우치, PET 병, 햇반 포장 등을 공부하면서 골판지 포장이외에 폭넓은 포장 산업을 인식하게 됐고, 포장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삼공제지(주)는 (주)농심에 신라면 자동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것을 비롯, 삼성코닝(주)와 한국전기초자(주)에 수출용 TV 브라운관 유리의 접철식 일체형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고 있다. 이중 TV 브라운관 유리의 접철식 일체형 골판지 상자는 수요업체로 하여금 조립 공간 및 인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고안,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하옥자 사장은 "물류를 포함한 국내 포장의 기술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을 뛰어넘는 선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준비된 포장 기술인이 되고 싶다고 밝힌다.

세계 일등 제품은 세계 일등 제품의 포장이 있을때 비로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는 하옥자 사장. 그녀는 포장 전문 인력의 양성에 업계와 정부가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국내 포장 기술 수준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자 제품 골판지 완충 포장재 개발뿐 아니라 제지 분야와 합성수지 분야에서 취약점이 서로 보완되는 복합 포장재 제조를 꿈꾸는 여성 제1호 포장기술사, 하옥자 사장의 발전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o

2004 포장기술사

국가경제 근간인 포장산업 발전 기대

김 성 수 / 삼성SDI 구매본부 부장

"이제야 포장인이 되었다는 설레임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동안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원해 주고 용기를 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삼성SDI 전사 포장재 통합구매 및 Global 포장재 혁신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수 부장이 제72회 포장기술사에 당당히 합격했다.

입사이래 생산관리 및 품질업무를 하던 김 부장은 구매업무를 맡게 되면서 포장재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함을 절감, 포장기술사를 준비하게 된다.

"기존에 접해보지 않았던 식품 및 플라스틱 포장재료 분야를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김성수 부장은 "포장재 구매 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배가하는 한편 포장 전시회(Korea Pack) 참관을 통해 간접적인 포장현장 체험을 통해 기술사 시험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포장산업 발전이야말로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며 수출증대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김성수 부장은 포장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한 것에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포장 업체들이 영세한 탓에 기술개발, 인력수급, 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김 부장은 "포장산업이 발전할 때 비로소 다양한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포장기술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부장은 포장산업의 리더인 포장기술사들이 21세기 포장 산업을 선진화시켜 국가경제에 있어서 포장산업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구매 업무를 하면서 포장에 관한 정보와 자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또 다른 구매자를 위한 포장관련 정보와 자료를 정리해 나가고 싶다고 밝히는 김성수 부장.

포장산업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

포장 · 물류분야 발전 매진

성 행 기 / 한국컨테이너풀(주) 농산유통사업부 차장

"포장업계에 입문한 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포장 관련 지식에 도움을 주신 선, 후배들과 관련 업체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용기를 주신 사장님, 전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컨테이너풀(주) 농산유통사업부 성행기 차장은 포장 및 물류분야에서 전문지식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포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리했다는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관련 법규 및 포장동향, 환경, 물류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부한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노하우를 공개했다.

성 차장은 "포장기술사의 내실 있는 기술의 습득 및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먼저 타 분야와 같이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며 "이에 보다 많은 포장인의 배출에 따른 포장기술사 양성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러기 위해선 포장 관련 단체와 업계는 포장인의 배출 및 포장의 관심도를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성 차장은 포장협회, 학회, 기술사회 등 포장관련 단체 및 포장업계에서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의 구심점이 없고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기술정립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성 차장은 한국컨테이너풀(주)에서 컨테이너의 규격, 치수 등을 표준화, 컨테이너를 공동으로 이용토록 해 물류의 합리화 및 물류비 절감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비 포장화 및 고 물류비 구조의 농산유통 분야에 대하여 물류기기공동화를 통한 물류효율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성 차장은 농산물 및 유통분야의 포장, 물류표준화 및 공동화를 통한 관련 업계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매진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포장 전문인으로써 성행기 차장의 활약에 주목해 본다. ko

2004 포장기술사

포장인 자부심 갖고 업계발전 일익 담당할 터

천 동 영 / (주)오리온 포장기획 차장

"포장인의 한사람으로서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동료, 선배 포장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오리온에서 포장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동영 차장은 업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과 그동안 여러분야에서 접했던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보다 나은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 차장은 "짧은 시간 많은 것을 준비하려니 마음만 앞섰고 업무와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현재 천 차장은 (주)오리온에서 Package Innovation, 라인 자동화, 원가절감 등에 관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편리한 포장 및 기능성을 부여, 제품의 부가 가치가 향상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천 차장은 국내 포장산업에 대해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과 더불어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능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보면 가격, 품질이 외국과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나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고의 품질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덧붙여 여러 단체가 각자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포장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여 포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단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발, 연구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차후 보다 나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천 차장은 "포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의 소망인 포장분야에서 최고의 인재가 되는 길에 한발 다가서게 된 천동영 차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o

2004 포장기술사

포장 인재 양성 위해 매진할 터

김 종 경 / 용인송담대학 유통산업 포장전공 교수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김종경 교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포장분야 선배님들, 직장동료 등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주변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용인송담대학 유통문화산업계열 유통상품포장전공에서 포장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종경 교수는 "대학 강단에 있으면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실무지식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국내 포장분야에 도움이 되기 위해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방대한 시험범위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포장관련 기술이나 정책에 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한 김종경 교수는 "포장의 정체성이 모호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매력을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업계에서 학생들을 메이저리그 2군정도로 생각해주길 바라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

"전문대학의 학과는 업계의 필요에 의해 과목이 결정되고 필요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포장관련 업계에서 학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고 교수와 학생들을 자극해준다면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혜택은 다시 기업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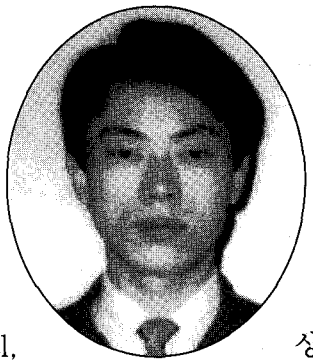
현재 국내 포장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한국포장협회가 산업자원부와 추진하고 있는 포장인력양성사업에 대해 김 교수는 "교육은 단체와 학교간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의미있는 사업이며 앞으로 공동연구, 정책개발, 기술정보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공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며 협회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단순한 학자가 아닌 실무를 다루는 기술사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업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o

2004 포장기술사

'글로벌 포장맨'으로 도약 다짐

김 평 수 / 삼성전자 과장



"매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포장 기술은 수천억원, 이는 반도체와 더불어 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한 자릿수 허용가속도(G's), 반도체의 대전처리 기술, 1000여만원대의 PDP Panel, 서비수용 자재의 5년 이상 보관(의무보유기간) 등 조달, 생산, 보관하역, 수·배송에 있어서 제품과 더불어 포장기술 또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포장산업 발전의 끝은 무한하다고 밝히는 김평수 삼성전자 과장이 제72회 포장기술사에 합격했다.

"'포장기술사'라는 칭호가 과분할 따름"이라고 밝히는 김평수 삼성전자 과장은 국내·외 삼성전자 물류거점(생산, 판매법인)에 대한 포장 및 물류 컨설팅을 비롯, 고객 클레임 개선, 업무 경영진단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칠레에서 안데스산맥을 따라 볼리비아로 통하는 산악도로의 진동충격치를 조사해 유통환경규격을 만들고, 신제품 개발될 때 적용하는 등 제품 수출전선의 첨병 역할도 하고 있다.

입사 이후 줄곧 포장업무를 맡아온 김평수 과장은 포장은 물류의 중심이며 제품 보호 및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 기술사 획득을 통해 명실상부한 포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포장기술사에 도전하게 됐다.

사내·외 포장 및 물류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통해 포장정보를 입수하고 선배 기술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포장기술사를 준비한 김평수 과장.

그는 기술사 준비에 있어 접해보지 못했던 플라스틱 포장분야를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평수 과장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단순한 포장재의 생산보다는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등 새로운 기술을 가미한 기능성 포장재 개발을 통해 포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기술사 획득을 통해 "Global 포장맨"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김평수 과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o